

2025 년 1 월 26 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이강선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예수의 심정으로 (빌 1: 8-11)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낮엔 해처럼"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구원의 완성자” (빌립보서 1:3-7)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시대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수많은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죄 용서함을 받는 복음, 의롭게 함을 주는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은 내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인 루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힘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단지 두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건과 배경은 다르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에, 문제에, 상황에, 사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가고, 잡혀가고, 도망치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한 계획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인내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구역에서,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십시오.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건물이 완성되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 헌신, 섬김, 사랑의 손길로 인해 누군가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에 쓰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월례회** - 마지막 주 주일은 예배 후 각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성찬식** - 2월 2일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4. **웃놀이** - 2월 2일 주일예배 후 구정을 맞아 웃놀이를 합니다.
5. **헌화** - 2025년도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원하시는 주간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6. **생명의 삶** - 2월 9일부터 요셉반 생명의 삶 성경공부 시작됩니다.
7. **장례예배** - 장길영 성도님의 장례예배가 1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장소 : Oakmont Memorial Park /
2099 Reliez Valley Rd, Lafayette, CA 94549

행사 및 모임

1월	각기관 월례회	1월 26일 (주일)
2월	성찬식	2월 2일 (주일)
2월	비전트립	2월 18-22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26	2/02	2/09	2/16
대표기도	이강선	조현숙	정병철	유영민
헌화성도	이삼희	김현옥/손정임	이은진	유영민
봉사당번	소망구역	사랑구역	사랑구역	믿음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안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7 주
설경 통독방	13 주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일화가 쓰여져 있습니다. 퇴근시간 즈음에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나도 이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나와 같은 처지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고 할아버지 한 분을 시작으로 중년 아저씨 한 분, 그리고 아주머니 한 분이 비좁은 틈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로 금세 꽉 찼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가련하기 짝이 없는 대열로 덩석 뛰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덩치로 우리 대열에 끼어들자 그 바람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 나갔습니다. 그 청년은 비를 맞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쪽 훑어보았습니다. 모두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몇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젖은 채로 비닐우산 5 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쥐어준 우산을 쓰고 총총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한 할아버지만이 한참 동안 고개를 축이고 계시더니 우산을 땅에 내려놓고는 장대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라고 말한 할아버지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눈앞의 상황을 단정 짓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내가 경험한 좋지 않은 일들을 바탕으로 한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무엇이든 쉽게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양심도 예의도 없는 행동을 하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소망보다 절망하는 마음이 들기 쉽지만 빛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위의 할아버지처럼 세상과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에게 대해, 교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 소망을 잃지 않고 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